

2024년 11월 22일 설교자 회의

본 문 : 에스더 7장 1-10절

제 목 :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의

대 지 : 1. 악인의 끝, 심판의 시작
2. 백성의 길, 주님과 함께

한문장 :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순간에도, 함께 하시며 그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1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악한 것들로 채워져 가고, 선한 마음으로 주변을 돌보며 사는 이들은 어려운 현실을 보내는데, 나 자신만의 유익을 생각하며 때로는 악을 눈감으며 사는 이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 '정의와 공의가 있기는 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엎드리지 않는 모르드개에게 노하며, 그와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음모를 꾸몄고, 왕에게 허가를 받아 당연히 자신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왕이 사랑하는 왕비 에스더가 마련한 첫 번째 잔치에 왕과 자신만 초대되었다는 사실은 그를 더욱 기고만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다시 마주친 모르드개는 이번에도 하만을 보고 인사를 한다거나 몸을 낮추는 행동 역시 없었습니다. 왕국의 권력 2인자인 하만은 분노했습니다. 더이상 모르드개를 두고볼 수 없었던 하만은 모르드개를 처형하기 위해 50규빗의 나무를 세웠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다 생각하고, 자신의 부탁을 왕이 당연히 허락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행과 교만의 끝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개를 처형하기 위해 계락을 수립하고 나무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모르드개가 왕의 목숨을 구한 일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하만의 손으로 모르드개를 높이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날 밤 하만의 집 분위기는 전날과 반전 되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개 앞에 엎드리질 것이라 예견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일을 대비하기도 전에 왕의 내시들이 하만을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 자리로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준비한 처형의 틀로 그 자신이 처형 당합니다. 그의 교만과 악행은 결국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계략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무너집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가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잠언 16:18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2

하만의 몰락 이후에도 유대인들의 고난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왕의 조서가 유효했고, 그들은 여전히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지혜로운 중재를 통해 아하수에로 왕은 새로운 조서를 내려 유대인들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지만,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 속에서도 그분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이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 문 : 요한복음 1장 1-14절

제 목 : 사랑으로 낳아지신 태초의 말씀

대 지 : 1. 우리를 찾아오시다
2. 우리와 함께 거하시다

한문장 :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낳아지시고 찾아오셔서 함께하심으로 구원하십니다.

1

요한복음은 우리 곁에 육신을 입으시고 함께하셨던 예수님이 단순히 인성만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곧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나 뛰어난 스승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요한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 이시며, 죄로 인해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인류에게 비추는 참된 빛 이십니다. 구약에서부터 수많은 외침이 있었습니다. 어둠을 헤메는 이스라엘에게,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는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빛이신 태초의 말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직접 찾아 오신것입니다.

그러나 5절에서 요한은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창조주이자, 생명의 근원이시며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시는 말씀이 어둠을 밝히셨지만, 자신이 지으신 세상에 오셨지만 인류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해버리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력이 살아있다면, 어둠 속에 밝은 빛이 비추었을 때, 어둠이 걷히고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시력을 잃었다면, 빛이 어둠을 밝혀도 빛이 왔다는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비추인 빛을 따라 걸어올 수 없는 상태이심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직접 우리 바로 앞에까 찾아 오시고, 불드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2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빛을 비추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신다고 1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하시다’는 어근은 장막, 천막을 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을 두고 임재하셨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과거에는 성막과 성전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함께 거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낳아지심, 인간의 몸을 입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헌신적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낳아지신 이유입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겔 37:27)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더 나아가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기 위함 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서 우리 곁에 함께하심을 믿으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 문 : 요한복음 6장 9-14절

제 목 : 일용할 떡을 넘어 영원한 떡으로

**대 지 : 1.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시는 주님
2.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주님**

한문장 :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채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는 표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인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필요에 따라 기적을 경험하고자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인 그들의 육신의 주림을 걱정하셨습니다. 따라온 사람들을 바라본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아 보이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을 불러 모인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라고 하셨습니다.(막6:34-37) 성인 남성만 5,000명이었으므로 여자와 아이들까지 20,000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었고 이들의 한 끼를 위해서 제자 빌립은 조금씩만 먹더라도 200데나리온, 즉 일반적인 노동자의 약 7개월치의 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시각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한 아이에게서 가져온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신 후 무리들의 필요를 차고 넘칠 정도로 채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오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께서서는 육신의 필요도 채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의 갈급함, 태함 받은 자들의 구원에 있었습니다.

2

예수님께서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사람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요6:26b)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당장의 필요와 만족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표적으로 빛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지만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은 당장의 병 고침과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하는 육신의 떡은 다시 결핍을 가져올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만이 영원한 충만을 주는 참된 양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은 무엇인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 6:35)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주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 문 : 요한복음 16장 25-33절

제 목 :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대 지 : 1. 세상 속으로
2. 세상을 넘어

한문장 :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1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제자들은 남겨질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로 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직면한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여정을 요약하며,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인간의 육신을 취하시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로서는 죽으실 수도 죄를 갖고 계실 수도 없으시기에 자신을 피조물의 형태까지 낮춰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하셨고, 사람들의 연약함과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2

예수님께서 28절 후반절에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던 곳으로 가신다는 것은 계획하셨던 목적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목전까지 다가온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는 말씀은 이 승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완성과 하늘로 올라가시는 일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회복되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본향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너희가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을 넘어 하늘의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핍박과 고난이 올 것이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소망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와 소망은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주어진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으로부터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어떤 상황가운데서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참고 : HOW 에스더, 엑스포지멘터리 에스더, 100주년성서주석에스더, 엑스포지멘터리 요한

복음, HOW 요한복음, PNTC요한복음